‘바벨론 유전자’ 식별하기

(이사야 13:1~22)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2.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3.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4.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여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5.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6.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7.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8.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바벨론 유전자’ 식별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바벨론 유전자’ 식별하기

이사야는 1~12장까지 남 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23장까지는 바벨론을 시작으로 남 왕국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모르고 사는 이방나라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앗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두로, 바벨론에 대해 예언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바벨론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결성될 것이 암시됩니다. 이 일은 실제로 100~150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사야는 이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

다. 그 다음 부분에는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 놀랍도록 슬프고 잔인할 것임을 예언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심판과 멸망의 결과로 참담해진 모습이 예언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멸망은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100~150년 후인 BC.539년에 메대와 바사(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언을 할 당시에는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아주 약소국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앗수르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력은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할 메대와 바사는 아직 존재조차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당시의 패권국인 앗수르를 멸망시킬 것이고 근동의 패권 국가가 되었다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까지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남 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당시에 남 왕국 유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던 주변국들에 대해 멸망을 예언하지 않고 왜 바벨론을 첫 번째 멸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일까요?
주변에는 패권국이었던 앗수르도 있었고 아람과 블레셋 등의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첫 번째 예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대적자로 등장합니다. 교회를 탄압한 로마제국을 바벨론으로 일컫기도 하고, 멸망당할 사탄과 사탄의 왕국과 우상숭배와 배교하는 무리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여호와 신앙에 반하는 적대세력의 상징이 된 이유와, 오늘 이사야가 바벨론을 첫 번째 예언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이유는 남 왕국 유다를 침공했던 여러 나라들은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당사자는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의미는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한 세계 유일의 잔치를 파괴한 것입니다. 사탄은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임마누엘의 사건을 미완성으로 만들어서 선민 공동체를 뿌리째 뽑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의도가 궁극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강력하고 뚜렷하게 표현된 사건이 바로 바벨론의 성전 파괴였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존재가 여럿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직장동료 등도 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상황들도 함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선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선민은 삶에서 함께하는 존재가 한 분 더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 위에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선민의 우선적 과제는 이방인들과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우선적 삶의 과제는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정한 기준을 따라 성공하는 것입니다.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이야 말로 삶의 우선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에 응답

해서 ‘나도 함께하겠노라’고 여기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민은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신 하나님께 응답하여 나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선민에게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선민의 우선적 과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대상들이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고 심지어 내 몸조차도 이러한 대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민은 가장 무겁고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체감해야만 합니다. 마음은 항상 가장 무겁게 느끼는 대상에게 향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지는 대상에게 존재감을 느낍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감보다 더 큰 존재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서 본 11장 9절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던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야다는 이처럼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최대한으로 실감하는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등을 비롯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한 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이 세상에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감보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무겁고 크게 실감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앎입니다.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천둥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름에 얼음골 골짜기에 들어가서 계곡물에 손발을 담그는 순간 더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하나님의 존재감을 세상의 어떤 대상의 존재감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더 무겁고 더 크게 실감하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감이 더 먼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상태입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람을 대할 때에 대상들의 존재감을 실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그랬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육체로 만나는 사건과 사람을 실감합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함으로써 서로를 알듯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실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건과 사람을 실감하면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상황을 체감하고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때에 첫 번째 반응은 이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감하는 세상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라면 계속해서 세상 안에서 해결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선민들의 반응입니다. 선민이라면 세상을 먼저 체감하게 된 자신의 마음을 문제 삼습니다. 아무리 돈 문제가 급해도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 문제를 더 체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하는 말씀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을 상징합니다. 마음에서 제일 먼저 체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담았습니다. 혹은 건강이나 배우자나 직장에 대한 문제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지성소에 법궤 대신에 돈이나 건강이나 배우자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지성소가 더렵혀진 상태입니다. 지성소는 거룩하게 구분된 대제사장조차도 일 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잠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마음은 지켜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계셔야하는 지성소인 마음에 세상의 문제와 사건들을 담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문제시하는 자들이 바로 선민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것을 마음에 담은 것이 영적인 추악함이고 음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번제단의 상번제가 의미를 갖습니다.
상번제에서 어린양의 각을 떠서 불에 태웁니다. 이러한 어린양의 죽음을 마음에 세상 것을 들여놓은 나의 죽음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진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임마누엘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시하여 체감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문제시하기는커녕 묵인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세상 것을 더 크고 우선시하는 상태에서 부르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삭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을 '바벨론 유

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옳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풀립니다.'라고 전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마음의 지성소에 사업이 담겨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를 용인하고 묵인합니다. 괜찮다고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 문제를 위한 해결책으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벨론 유전자를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배경에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제대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인 탓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킴을 포기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존재감을 먼저 느끼며 살아간다면 바벨론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듣기 전에 이미 세상을 먼저 체감합니다. 돈이나 건강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유전자와 예수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예수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를 문제시합니다. 문제시하기에 이러한 상태를 죽이는 번제단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함을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바벨론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돈 문제가 급박하게 여겨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묵살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한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범죄였기에,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음녀로 비유하였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들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우선적으로 체감하면서 이 상태를 정당하다 여기는 자들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자연스럽고 인간으로써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의 이름입니다.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 음녀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고 말하며 경계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하여 체감할 수밖에 없고 이미 체감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가장 큰 일로 체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상태가 잘못 되었음을 압니다. 유지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멈추고 십자가에서 마음 죽이는 것을 삶의 유일한 과제로 삼습니다.
바벨론 유전자를 가진 자들은 십자가를 죄사함의 사건으로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업신여기고 버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일들의 존재감을 체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혹은 이방나라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남 왕국 유다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미 성전의 의미를 잃은 채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바벨론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서 성전이 파괴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파괴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떨까요?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음에서 성전을 파괴했던 남 왕국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 유전자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체감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태를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유전자는 이 상태를 인정하고 묵인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위해 찾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예수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의 첫 번째 과제는 세상을 먼저 체감하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체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